

## 식민지 근대의 정신분석

[서평] 유선영(2017), 『식민지 트라우마: 한국사회 집단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푸른역사, 388쪽.

이 정 엽\*

### 1. 문화연구와 역사학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는 비판적 사회분석의 초점을 경제, 정치 체제, 구조 등으로부터 일상, 경험, 재현, 표상, 기억, 담론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옮기려는 지적 조류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문화연구는 단지 기존에 문화적 영역으로 지칭되던 분야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경제를 포괄하는 사회를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는 지적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연구라는 이름 자체는 1960년대 말부터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스투어트 홀(Stuart Hall) 등 영국에 기반을 둔 신좌파 학자들이 행한 선구적인 작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특히 스투어트 홀의 주도 하에 문화연구는 기호학,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트랜스내셔널 연구

---

\* 연세대학교 강사, 문화연구자

등과 연관을 맺으며 넓은 지적 운동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 이후 특히 영미권 사회과학 전반과 넓게는 문학과 역사학을 덮친 ‘문화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문화연구라는 단일한 기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문화연구가 쌓아가던 지적 성과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문화연구라는 지적 조류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990년대 초중반이다. 한국에서 문화연구는 민주화와 자유화의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의 ‘대중문화의 폭발’을 설명하는 이론과 분석틀을 제공했다. 한국에서 문화연구는 계급 구조와 생산 체제, 민중운동과 사회 변혁 등을 대신하여 신세대 문화, 대중문화 예술 장르, 소비문화 공간 등이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다. 제도 학문분과 내에서 문화연구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사회학과 더불어 언론학이었다. 이는 문화연구가 영국에서는 사회학 분과에, 미국에서는 (문학, 영화 연구와 더불어) 언론 미디어 연구 분과에 제도적으로 자리잡게 된 사정, 그리고 한국 사회학계의 미국 의존적 경향과 관련될 것이다. 한국에서 문화연구의 문제의식은 주로 현대 미디어와 대중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도 접합되었다.

역사학도 일종의 ‘문화적 전환’을 겪었다. 그 전환을 좁은 의미의 ‘문화연구’에 온전히 돌리는 것은 물론 온당치 않을 것이다. 역사학 내에서 문화적 전환은 일상사, 미시사, 생활사 등을 지칭하는 ‘신문화사’라는 지적인 조류를 대표로 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전환’의 일환으로서 신문화사는 ‘분류사’로서 문화라는 분야에 대한 역사를 뛰어넘어, 역사연구 전체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는 시도였다. 한국에서 신문화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로 서양사를 중심으로 소개되었던 반면, 한국사학 내에서 문화적 전환은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폭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근대성 연구는 한국 역사학계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국외의 한국학 그리고 한국내 문화연구)의 ‘개입’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식민지 근대 논의는 신기욱과 마이클 로빈슨이 편집한 *Colonial Modernity in Korea* (1999년 출간, 2006년 한국어 번역,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출간)에 의해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고 간주된다.<sup>1)</sup> 이 책이 나온 이후 윤해동 등에 의해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대체로 ‘합의된’ 연구 경향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olonial Modernity*와 같은 해에 출간된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sup>2)</sup> ‘현대성의 형성’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이 책은 현대의 문화적 뿌리가 1930년대일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했고, 특히 문학연구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텍스트와 표상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근대성 연구를 촉발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후 10여 년간 역사학계 내외부에서 문화연구의 통찰력에 직간접적으로 힘입은 성과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문제의식은 해방 이후 연구에까지 이어지며 생산성을 지속하고 있다.<sup>3)</sup>

최근 문화연구를 비롯하여 사회과학, 문학, 역사학을 가로질러 눈에 띄는 움직임 비판연구의 조류 중 하나는 신체, 감정, 정서, 감각, 감응, 정념 등에 대한 관한 관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른바 ‘정동적 전환

- 
- 1) 허영란(2010), 「한국 근대사 연구의 ‘문화사적 전환’: 역사 대중화, 식민지 근대성, 경험세계의 역사화」, 『민족문화연구』 5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65-99쪽.
  - 2) 김진송(1999),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 3)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들을 들 수 있다.  
 천정환(2003),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이화진(2016), 『소리의 정치: 식민지 조선의 극장과 제국의 관객』, 현실문화.  
 정병욱(2013), 『식민지 불온열전: 미친 생각이 뱃속에서 나온다』, 역사비평사.  
 장세진(2012), 『상상된 아메리카: 1945년 8월 이후 한국의 네이션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푸른역사.  
 이하나(2013), 『‘대한민국’, 재건의 시대 (1948-1968): 플롯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푸른역사.

(affective turn)'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다.<sup>4)</sup> 국내학계에서도, 특히 문학과 문화연구를 중심으로, 정동적 전환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여럿 나오고 있으며,<sup>5)</sup> 『식민지 트라우마』 또한 감정, 정서, 신체로 관심을 돌리는 그런 지적 흐름 속에서 위치지을 수 있을 것이다.

## 2. 식민지의 감정구조

『식민지 트라우마』의 저자 유선영은 한국에서 문화연구의 문제의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저자가 박사 논문을 발표한 게 1992년이므로,<sup>6)</sup> 25년 넘게 식민지 시기 문화연구에 천착해온 셈이다. 저자는 그동안 여러 논문을 통해 대중문화와 시각문화의 장에서 식민지 주체가 형성된 복잡한 문화적 과정을 밝히고자 했으며, 문화연구의 문제틀과 담론과 재현 분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식민지 역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한국에서 문화연구가 대중문화 연구와 당대 미디어 연구로 축소되고 기존 학문 분과를 가로지르는 학제 간 성격이 거의 희석된 현재 상황에서 바춰보면, 제도화된 학문 분과의 제한을 넘어서는 문화연구의 초기 문제의식을 유지해온 지적 태도는 높이 살만하다.

『식민지 트라우마』는 그동안 저자가 발표한 여러 논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책으로서, 저자는 식민지 근대의 일상과 경험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 저자가 앞세운 키워드는 모욕과 심리적 폭력, 불안과 수치의 심리

---

4) Clough, P.T. & Halley, J.(Eds.) (2007), *The affective turn: Theorizing the social*, Duke University Press.

5) 역사연구에 한정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들 수 있다.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손유경(2008), 『고통과 동정: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6) 유선영(1992), 「한국 대중문화의 근대성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에서 일제 시대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감정이다. 이 몇 개의 키워드만을 보더라도, 식민지 조선의 근대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 기존의 정치경제적 접근은 물론 사회문화적 접근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자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식민지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재배치되어야 유지되는 체제고 이 기본적인 사회관계 안에서 민족적 모욕과 수치, 폭력, 굴욕 또한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정복민족과 절대 다수의 피정복 민족의 힘의 격차에 기반한 강제, 억압, 착취의 관계가 전부인 것은 아니다. 이 식민적 관계를 관통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문명인과 미개인의 이분법 또한 트라우마다”(6-7쪽).

수탈, 착취, 불평등, 억압, 차별, 폭력, 불평등 등의 부정적 측면을 발전, 진보, 개발, 계몽, 문명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어떻게 연관지어 설명할 것인가. 전자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이루었다거나, 후자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지배적이었다거나 하는 설명은 공통적으로 두 측면을 상호배타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논박하고자 할 뿐 아니라 식민지 수탈론에 대해서도 거리를 둔다. 나아가 식민지 근대성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17쪽), 이 입장이 표상과 상징 차원에서 발현되는 ‘근대성’에 강조점을 두는 데에도 불만을 갖는 듯하다. 저자는 식민지에서 펼쳐진 근대성은 필연적으로 신체와 정신 모두에 대한 폭력을 수반한 과정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런 폭력은 단지 국가폭력이나 제도적 폭력에 제한되지 않으며, 문명과 근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신체와 정신에 상처를 남긴 일상의 폭력을 포함한다. 이렇듯 폭력으로 점철된 근대 식민지의 일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자는 바로 심리적 감정적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다.

저자는 식민지 근대 일상의 감정의 심층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과 개념적 틀로서 윌리엄스의 ‘감정구조’ 개념과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을 제시한다(17-18쪽). 그러나 실제로 본문

에서 부르디외의 존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대신,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피식민 민족의 정신분석과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정체성 논의 등 다양한 자원에 의존한다. 저자의 논의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은 감정구조 개념이다. 문화연구 내에서 잘 알려진 고전적 개념이지만, 문화연구가 의미와 담론, 기호와 표상과 재현 등에 집중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잊혀져온 개념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앞서 언급한 ‘정동적 전환’에 힘입어 재조명받고 있으며, 일상, 감정, 경험이 개인 차원을 넘어 특정한 시공간에서 공유되는 집합적 차원을 부각시킨다. 저자는 식민지에서 민족주의는 이런 민족감과 민족정서의 차원으로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 3. 모욕과 수치의 식민지 역사

저자는 심리적 모욕과 수치가 식민지의 폭력과 억압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모욕과 수치는 현실의 지배자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가해졌을 뿐 아니라 근대와 문명 그 자체로부터도 가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자는 2장과 3장에서는 이런 근대와 문명이 가하는 폭력의 심리적 메커니즘의 발원을 구한말로부터 추적한다. 외세에 의한 ‘업수이여감’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반응은 분노와 공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지와 미개함, 그래서 당당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의 후진성”(42쪽)에 대한 수치심이었다. 문명과 미개의 이분법을 내면화하는 자기 오리엔탈리즘이었고 자기혐오와 자기부정이었다.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물질문명에 대해 식민지민은 주눅들었고, 문명화된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원시성, 후진성, 열등성”(61쪽)으로 자기규정했다. 비교에 대한 강박과 열등감을 내면화하는 것은 특히 시선에 민감해진 식민지 엘리트였을 것이다. 널리 분석된 이광수의 기행문에 나오는 한 장면, 즉 영자 신문을

반쯤 보이도록 주머니에 꽂은 모습(69-71쪽)은 식민지 지식인이 내면화한 타자 시선의 정치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동족과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욕망은 이런 콤플렉스와 나르시시즘에서 나온 것이었다(10장). 조선에서 ‘아메리카’는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현실에서 한걸음 떨어져 교육과 의료, 과학기술로 상징되는 첨단 문명과 합리성과 진보라는 ‘상상’의 근대를 담지하는 구원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주눅들어서 ‘타자’의 시선을 끊임 없이 의식했고 인정에 대한 욕망을 키웠는데, ‘황색 식민지’<sup>7)</sup> 현실에서 문명과 근대의 화신으로서 우호적 감정과 동경의 대상이자 독립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청원할 대상은 다름 아닌 ‘아메리카’였다(6장).

식민지 지식인들이 ‘상상의 아메리카’를 ‘구원자’로 그리며 동포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삼고 스스로를 구별지으려고 애쓰는 동안, 식민지민이 일본 식민지배자로부터 받은 폭력과 모욕의 양상은 4장과 5장에 서술되어 있다. 일부 식민지 지식인에게 일본은 점차 문명국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무력과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식민지배자는 식민지민에게 철저하게 반감과 적대, 증오의 대상이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문명과 미개의 이분법을 적용하고, 식민 지배를 “문명화 사명”(93쪽)과 연결지으며 근대와 문명의 담지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물리적 정서적 폭력으로 점철되었다. 식민지민에게 ‘문명화’는 목가적 과정일리가 없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화와 문명화의 ‘현실’은 폭력과 멸시와 모욕이었고, 그로 인한 수치와 비참의 감정이었다.

저자는 문명의 이름으로 일상에서 자행된 폭력의 양상을 위생행정과 풍속 규율을 통해 상세하게 보여준다. ‘위생’은 근대 문명과 합리성을 상징하는 지표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위생은 위생경찰을 통해 근대 규율로서 폭력적으로 관철되었다. 위생은 식민지민의 신체에 작동하는 생권력

7) 유선영(1997), 「황색 식민지의 문화정체성」, 『언론과 사회』 18,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81-122쪽.

이었을 뿐 아니라, 모욕, 멸시, 협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감정을 매개로 자행된 일상 폭력이었다(4장). 권문세가 자제들을 부랑자로 몰아 굴욕과 수모를 당하게 하는 풍속단속이나, 조선인을 멸시하는 ‘요보’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였다(5장). 이 과정에서 수치와 비참, 분노와 동정이라는 감정은 폭력적 소요로서, 민족 감정의 폭발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공간에서 동포가 받고 있는 고통에 동정하고 공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분노의 공동체’, ‘감정의 공동체’이자 ‘비참의 공동체’(158쪽)이기도 했다.

저자는 7장에서 극장이라는 공간과 연예라는 장이 특히 식민지의 정치적 제한 때문에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동정금을 증여받고 연예를 답례하는 교환관계가 식민지민이 상호부조의 윤리를 실천하는 방식”이었고, 이를 통해 “식민지민은 민족적 정체성의 확인, 운명공동체라는 감각, 그리고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얻었다”고 언급한다. 특히 1921년 ‘해삼위 학생음악단’의 전국순회공연을 둘러싼 ‘동정열’은 그런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연해주 이주 한인 후손으로 이뤄진 예술단의 전국순회 모금공연을 둘러싸고 식민지 공공 영역이 형성되며, 동정의 감정으로 바탕으로 한 호혜적 교환관계가 감정의 공동체인 민족으로 형성 발전함을 시사한다. 같은 시공간 속에서 고통을 공유하는 동포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이 바로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이다.<sup>8)</sup>

이렇듯 문명과 미개의 이항대립은 현실의 폭압적 지배자인 일본과 ‘상상의 아메리카’와 조선이 맺은 삼자적 관계로 인해 이미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내 이주 상황은 민족 간 위계의 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8, 9장에서는 일본 식민 지배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인과 중국인 간의 관계를 통해 식민지 심리 상태의 복합적 모순을 드러

8) Anderson, Benedict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Verso Books.



낸다. 저자는 1931년 벌어진 ‘만보산(완바오산) 사건’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사건은 식민지 폭력이 낳은 모욕과 무시가 피식민 민족 간 갈등을 만들고 또다른 폭력을 낳은 비극의 악순환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한 식민지 조선인에게 중국인은 열등하고 미개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위계적 인식과 심리상태 하에서, 만주 장춘의 만보산에서 논을 개간하던 동포들이 중국 관헌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선인들은 격렬히 반응했다. 한국 언론 사상 최악의 오보로 기록되는 만보산 사건 보도로 인해, 평양 등지에서 조선인 군중이 119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한 기존의 많은 분석이 지적한 “민족주의의 과잉”(275쪽)이라는 진단에 대해 저자는 조금 결이 다른 관점과 해석을 제시한다. 국가 부재상태인 식민지의 민족주의는 “사상과 이념으로서가 아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일상 경험을 통해 실감되고 감정적으로 체감되며 신체화되는” 것으로서, “구조화된 감정상태”(276쪽)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족감정은 원초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감성적, 본능적으로 표출”(276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잉되지 않는 민족주의라는 관념은 단지 허구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식민지의 민족감정은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폭력과 파괴, 공격과 광기로 표출될 수 있는 불안한 히스테리적 심리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통찰이다.

#### 4. 식민지 근대의 감정과 주체형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 트라우마』는 모욕과 수치라는 키워드를 통해, 식민지민의 감정과 일상을 중심으로 식민지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문화연구의 이론과 개념들과 역사

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성론 사이에서 문화연구적 적절한 개입을 수행했다. 특히 식민지 근대성 논의에 일상폭력의 문제를 재도입함으로써 재현과 담론 중심적 편향을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을 제공했다.

『식민지 트라우마』의 핵심주제 중 하나는 식민지에서 모욕과 수치라는 감정 메커니즘을 통해 어떤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식민지 권력이 작동하며 만들어 낸 다기한 정서적 반응을 서술하는 데 주력한다. 그 즉각적 감정인 모멸감과 수치심은 복잡한 심리적 기제를 거쳐 좌절감, 무력감, 열등감, 불안, 자괴감, 냉소, 자기비하, 비교강박 등 다기한 감정적 반응으로 변이한다.

이런 감정적 반응은, 저자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식민지 엘리트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저자는 이광수, 김동인, 오기영, 염상섭 등 지식인의 기록을 통해 복잡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려고 하며, 그 가운데 식민지적 정체성의 불안정과 균열을 시사한다. 저자가 감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식민지 엘리트의 심리를 파논의 정신분석학 범주 등을 동원하여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그려내는 데 비해, 식민지민의 심리적 기제와 감정은 비교적 단순하게 묘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만보산 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식민지민의 누적된 모욕과 좌절로 인한 히스테리가 중국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으로 폭발했다고 설명한다. 비록 일제의 지배 메커니즘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묘사한 식민지민의 심리는 식민지 지식인이 겪은 복잡하고 도착적인 심리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단선적이다.

결국 저자가 모욕과 수치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 것이 식민지민 일반의 주체형성의 심리적 과정이라면, 실제 분석의 결과는 식민지 엘리트의 그것에 제한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의 문제가 아니다. 극장과 연예라는 공간에서 동정을 통한 감정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설명 또한 통합적인 집

합주체로서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심리와 감정을 경유해서 결국 저자의 관심이 돌아가는 것은 민족이라는 단일한 주체형성인 것은 아닐까.

이런 인상을 받은 이유는 어쩌면 사료의 문제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식인의 심리는 그들이 남긴 여러 장르의 글을 통해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반 식민지민의 정신상태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신문기사는 당연하게도 매우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며, 민중사나 일상사 일반이 공유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정과 심리를 통한 식민지민의 분석이 단선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무시, 모욕, 멸시 등의 감정 폭력의 문제는 당연하게도 민족 간 문제로 제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분, 계급, 젠더와 같은 사회정체성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저자가 이처럼 민족을 제외한 다른 범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근대사에 과묵한 서평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형평사 같은 신분해방운동은 감정과 심리의 문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고 유효한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급이나 인종 등으로 환원하지 않는 사회정체성의 중첩은 문화연구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며, 저자가 크게 기대고 있는 프란츠 파농에게 있어서도 식민지 사회에서 인종과 계급 모순의 교차로 드러나는 모순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집단불안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이 책의 부제와 관련하여 식민지 트라우마의 현재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평을 맺으려고 한다. 저자는 성장주의, 권위주의, 부정부패, 낮은 신뢰, 학벌주의, 서열주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갑질’,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 오늘날 한국의 갖가지 문제를 열거하며, 그 근원에 자리잡은 심리적 불안정성이 식민지 시기에서 연원함을 시사한다. 해방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인의 마음으로 살아온 것일까? 저자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실은 많은 논자가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근대성의 문제는 여전히 식민지성과 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서영채는 오늘날 한국의 문제를 ‘식민지 근대성’이라고, 외부지향적 식민지의 마음이라고 요약한다.<sup>9)</sup> 세월호 참사가 그 심연이고 촛불과 탄핵이 그 심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 책의 저자와 궤를 같이 한다. 각자도생,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오늘날 ‘헬조선’에 대한 분석을 식민지성에 온전히 돌리는 것은 당치 않고 해방 이후 70년의 세월을 식민지의 연속으로만 본다면 물론 물역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분석적 효용이 소진되어버린 ‘신자유주의’라는 맥없는 규정보다는, 호흡을 길게 하여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언제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야 한다면, 저자가 강조하듯이 근대성 문제가 결국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9) 서영채(2017), 『죄의식과 부끄러움: 현대소설 백년, 한국인의 마음을 본다』, 나무나 무출판사.